

### 로컬플리츠



#### 정읍시, AI 차단방역 활동 강화

정읍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지역 내 철새 도래지 및 주변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 등의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철새들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AI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하지만 어느 때보다 AI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에 따라 대표적인 철새도래지(동림저수지) 주변 가금 사육농가 48호에 대한 축사 소독과 함께 농장 출입 통제, 축사 그물망 설치 등 차단방역 추진 실패를 매주 1회씩 점검해 농가의 경각심을 높이고 AI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 부안 다문화가족 마을학당 운영

부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다문화 마을학당을 운영한다.

내달부터 운영되는 다문화 마을학당은 거리가 멀거나 취업 등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이 어려운 결혼 이주여성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반찬·술조·하서·상서·백산·부산면과 부안읍에 직접 찾아가 개설된다.

교육은 전직 교사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자격을 갖춘 10명의 교사가 한국어와 부모역할, 자녀지도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마을학당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부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전화(☎ 063-580-4600)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 김제 19개 읍면동 이·통장 간담회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지난 23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19개 읍면동의 이·통장협의회장단 19명과 임기 만료된 전임 회장 6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님들에게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김제시 발전을 선도하는 노고에 감사하며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이광범 이·통장협의회장의 인사말로 이통장님들이 재난사태 발생시 행정에 미루기보다 솔선수반하여 내 집앞 눈치우기, 비상방송등을 실시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부탁하였고, 2016년도 협의회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교월동, 장수사진 촬영 봉사

김제시 교월동 『당신멋져 봉사대』(공동대표 최창희, 김주택)는 24일 관내 재월동 제내마을에서 어르신 3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펼쳤다.

회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만들기를 실천해나가고 있는 당신멋져 봉사대원들은 매일 교월동 소재 마을을 순회하며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장수사진촬영, 미용봉사 및 음식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3월 교월동 입석마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개 마을 220여명의 어르신들께 무료 장수사진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섬진제저류지준설 주민 고통

### 농어촌공 부안지사 최저 환경저감시설조차 갖추지 않아 비산 먼지 날려

한국 농어촌공사 부안지사가 시행 중인 전국 최대규모 섬진제저류지(계화도 간척지)준설사업이 환경을 무시한 마구잡이식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최소 환경저감시설인 세류·제차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토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도로가 누더기로 변하고 비산 먼지까지 심하게 날려 이 곳을 지나는 차량운전자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24일 대형덤프 트럭들이 빠져나오면서 차랑과 바퀴에 묻은 흙더미와 잔돌 등이 도로변으로 떨어져 나뒹굴면서 도로의 기능을 훼손하고 있고 도로변에 비산 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살수차량도 제대로 운행하지 않아 운전자들의 불편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강풍이 불어대치는 날에 현장을 드나드는 대형트럭들로 인해 상당한 양의 비산 먼지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부족한 살수작업으로 인해 그 먼지가 고스란히 주변 마을과 현장을 지나는 차량에게 피해를 주며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

또 섬진제저류지 준설사업장의 경우 현장이 4곳으로 분할되어 각 현장에 세류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오직 단 1곳만 사용되고 있어 눈거리고 아웅산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형식적인 세류 시설이라는 비난이 일고



세차 시설·살수차량 미비 등으로 비산먼지 문제가 심각한 섬진제 저류지 준설 현장

있다

운전자가 모셔(61세)는 "이곳을 지날 때 보면 대형덤프트럭이 건설현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과정에서 상당 구간에 흙더미와 잔돌 등이 떨어져 나와 나뒹굴면서 차량의 소음을 방해하며, 흙먼지로 인해 도로와 차량을 더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비산 먼지 관리에 관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줄이려면 살수 차량을 통해 도로에 일정기간 물을 뿌려 주어야하며, 현장을 방문한 모든 공사차량은 반드시 세류장을 통과해 일반 도로로 진입해야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관리감독해야할 한국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의 허술한 공사 감독으로 인해 2차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산먼지의 고통이 주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어 업체 바주기식 공사라는 비난의 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한편 섬진제저류지 준설사업은 총 공사비 32억 6천만 원에 지난해 12월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8일 준공을 목표로 저수량 4,327천㎡, 수해면적 227ha, 준설면적 33ha, 준설량 281천㎡으로서 전국 최대규모로 준설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 정읍시, 새봄맞이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

### 8억 6천만원 투입... 울타리 정비와 가로수·가로등 교체 등

정읍시가 새봄을 맞아 지역 내 산업 및 농공단지 노후 시설물과 주변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지역 내 산업·농공단지의 노후된 공공시설물과 주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개선과 정비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할은 물론 입주기업들의 편의증진과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정읍시에는 산업·농공단지 11개소 443만 9천㎡가 조성돼 있다. 입주기업은 227개 업체로 약 5천800여명의 종사자들이 생산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시는 "이들 산업·농공단지 대부분이 조성된 지 10년이 넘어 기반시설이

노후되고 주변 환경이 정비되지 않아 입주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의 애로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8억6천만원을 들여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공공 시설물의 울타리 정비와 가로수·가로등 교체, 낙석 위험구간 개선, 우·오수관, 공업용수 및 배수관로 정비, 입주업체 안내표지판 설치, 단지내부 차선도색 등을 추진한다.

시는 특히, 준공된 지 27년이 경과되어 낡고 노후된 농공단지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면 농공단지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는 방

침이다.

수입계획에 따라 가로등과 울타리를 교체하고 무질서하게 조성되어 있는 녹지대와 각종 안내판을 정비할은 물론 도로정비 등을 통해 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지 주변 환경개선에도 대대적으로 나선다.

이와 관련해 시는 환경 정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해 각종 쓰레기 수거와 녹지대 수목 정비, 도로변 잡초 제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생기 시장은 "기반 시설물과 단지 주변 환경 정비와 함께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김제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점검

김제시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을 점검받고 주민숙원사업 3개소에 대하여 국비지원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날 점검은 이건식 김제시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이 수행,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위험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으로 진행되며 관계자 등이 김제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금산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김제육교 재가설사업비 240억원중 18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하였다.

또한 급경사지 사면의 절리 및 풍화로 인해 사면유실이 우려되는 금구면 월전리 금구14지구 및 죽산면 죽산리

죽산 1지구에 대하여 급경사지 정비사업비 40억원중 2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번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기간 동안 시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위험요인을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해줄 것"과 "노후시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이번 4월 말까지 실시하는 국가안전 대진단을 통해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등 시설물에 대한 책임 있고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확인 및 점검으로 안전사고 제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해상치안과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위도 해양안전센터 직원들

## 주민사랑 듬뿍 '위도 해경안전센터'

### 류근식 센터장 비롯 13명 직원들 안전관리 최선

어민들의 조업선박의 출·입항은 물론 해상치안과 안전관리를 도맡고 있는 위도 해경안전센터가 지역주민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부안군 위도 면에 위치한 위도해경안전센터(위도 안전센터)는 위도해경안전센터(위도 안전센터 류근식센터장)대리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해안선 길이 84km 위도를 중심으로 식도 왕 등도 등 380km 면적을 관할하고 있는 군산해양경찰안전서 소속 4개 안전센터 가운데 하나다.

류근식센터장을 비롯하여 13명의 직원들이 조업선박의 출·입항 점검에서 겨울에는 특히 기상 조건 따라 출항이 제한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위도 주민들의 육지와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야간이나 기상악화로 여객선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위도 안전센터 순찰정을 이용해 긴급 후송하는 등 섬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 밖에도 연간 4천 명 이상이 방문하는 위도해수욕장 인명구조 활동은 물론 위도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인 해상 양식장 절도를 예방하려고 해상치안과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위도 지역주민 김모씨는 "위도 안전센터야말로 지역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위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GIFT SET 1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 | 750ml 1ea/12%

###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이어 깔끔함을 한껏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번산만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탄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4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 | 375ml 5ea/13%

GIFT SET 6 | 500ml 1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 | 375ml 2ea/13%

TEL : 063-584-9900

www.gangsanwine.com